

去般 吳會長이 在美 同窓名으로 綴小한 自己의 医料 雜具를 母校에 寄贈 郵送한 바 있다함은 第一号 消息欄을 通하여 報道된 바 있거니와 이에 母校 病院에서는 感謝의 뜻으로 지난 十一月에 감사장과 기념품 (東洋 惠一 品)을 吳會長 앞으로 贈呈하였나 한다. 孔子 云 德不孤必有 隣 見不善如 探湯 하라 하였습니다.

**동창생의 이로저로**

① 신년들어 화축을 밝힌 동창생 : NORWALK 의 유호현 양 백년지가약을 축하합니다. ② 득남·득녀의 기쁨을 가지게 된 동창생들 : 최승식, 최도식, 구동학, 황기근 부부 Dr. Spock 의 Best-Seller 를 능가 할 만한 소아과 안에서 짐할증이라는 소식에 많은 성원과 축하를 드립니다. ③ Canada 의 Prince Albert 에 계시는 김창호씨 : 지방 도주지에 중진이고 무지로 등장 ... 동창들의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④ New Haven 의 이시영씨, Detroit 의 유영시흥씨 정신 과학의 첨단에서 활약하는 한편 지방 동창회의 목성에 주야로 노력 등지가의 열성을 찬양 합니다. ⑤ Queens 의 박대경 : 오는 6월에 귀국, 금의 환가 하시기 바라며 SO LONG!

1968년도 동창회비를 아래의 주소명으로 총무에게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대로 Training 을 받고 계시는 분은 5 弗 ; 그외는 20 弗 이며 총무 Address 는 Dr. J. H. Kim 425 E. 68 ST, N.Y., N.Y., 10021)

\* NORTH AMERICA ALUMNI ASSOCIATION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경북재미소식 제이호 발행인 : 오창열 편집인 : 김재호 1968년 3월 1일

ADDITIONS AND CHANGES OF ADDRESS

Pyun, Kwangwoo	1950	Tel. 204 727 0631
Choi, Songshik	1953	Apt. 8, #8 Bldg, Oxford Rd. Latham, N.Y.
Moon, Kuhyun	1953	815 Crest St., Iowa city, IA.
Choi, Jaekee	1956	Medical Clinic, Langenburg, Sask., Canada
Juhn, Sunkyun	1957	609 8th Ave., S.E., Minneapolis, Minnesota
Lee, Seehyung	1959	299 Columbus Ave., New Haven, Conn.
Rhew, Shihung	1959	31757 Arenac Ct., Westland, Mich. 48175
Kang, Jinkoo	1961	Tel. 516 231 8000
Lee, Chimeen	1962	Tel. 216 252 2775
Park, Hisung	1962	Tel. 313 833 1977
Bae, Ikhak	1963	Tel. 313 961 7302
Park, Rojong	1963	Tel. 833 5735
Shin, Jungduck	1963	Tel. 372 5497
Whang, Kijun	1963	Tel. 832 7836
Lee, Changyun	1964	Tel. 833 8987
(*) Kim, Chungwhan	1964	Bronx Lebanon Hosp., 169 St., Fulton Ave. Bronx, N.Y. 10456
(*) Park, Undong	1964	Vassar Brothers Hosp., Poughkeepsie, N.Y.
(*) Hwang, Haeman	1964	Salem Hosp., Salem, Mass.
(*) Lee, Dong Phil	1964	Springfield Hosp., 759 Chestnut St., Springfield, Mass.
Kang, Sukbong	1965	Tel. 677 5421
(*) Moon, Chungoh	1966	166-05 Highland Ave. Jamaica, N.Y. 739 8825
(*) Yuk, Jong Yoon	1966	Detroit Memorial Hospital, Detroit, Mich.

(\*) denotes the newcomer.

편집실에  
들어온  
소식

(1) 대구에선 학내에 여러가지 일이 생겼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일간지에 "공덕고 알먹는 대학병원 교수" "개인병원 갖어 알맹이는 집에서" 등등의 주먹만한 활자로 이종으로 직을 가진 선생님들 명단과 병원 이름이 게재되어 여러 선생님들 사표를 제출 또는 제출 하려고 하고 있고 몇일후엔 "연구업적 없어 CMB 협조중단" "연구생 호주머니터는 의대"란 제호로 이번엔 대문짝 만한 활자로 사회면 옥판 전체를 찢이하여 "논문대필" "돈에 눈이 어두운 교수 요정에서 연구생과 대학 즐겨" 등등으로 악의에 찬 보도가 계속되어 없어진 사람 덮친데다 난타하는 격이라 모두들 실신에 가까운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이성관 학장 취임하시자 잇다른 사건이라 관운 없는 분이란 평이 나올 정도니 학장은 미국 존슨대통령 심정과 비슷할 것으로 짐작 됩니다. 연구생이라는 것은 박사과정 시험을 치지 않고 개업하면서 일주일씩 정도 소속교실 세미나에 나와 삼년후 어학시험치고 학위주는 제도인데 원래 서울의대에서 시작하여 전국에 번져 한참 호경기인 이상한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문교부에서 조정하겠다고 하나 몇일전 학국일보에 "서울대학교 졸업식 새 박사님들 76명 의박은 43명" 이라고 된것을 보니 조정할 길이 없는 모양입니다. 새해에 밝은소식은 오지 않고 친우들도 실의에 찬 나날들을 보낸다는 편지만 보내오니 마음 것잡을수 없습니다. 하토 빨리 모든 것이 정상화 되기 바라는 마음 간절 합니다. (K.J.)

(2) 모교내과 전임강사로 있는 김상운(60년)은 오는 7월 1일 Booth Memorial Hosp., Flushing, N.Y.로 오신다는 소식을 접하였는데 재미동창생 명부를 입수하여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합니다. 유병철(61년)은 징집 검사관으로 파견 되었다가 제일육군병원 정형외과로 원대 복귀하여 근무중, 월남에 파견 되었든 장원익 백부기 소령은 귀국하여 제일병원 내과에서 근무중, 설수길, 이승도, 박병덕, 백영수 소령들은 지금 월남에서 활약중, 조수로 모교 정형외과 해지던트, 작년 11월에 강진성, 김원준의 학위 축하점해서 61년도 동기 동창회를 가져 40여명이 참석하여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는 소식 입니다. (B.R.C.)

(3) 영주권을 얻는 길에 대하여 - 이곳에 와 있는 많은 동창이 앞으로 미국에 영주해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속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아는바 없어 답답해 하는 것을 용용 듣고 있습니다. Exchange Visitor 토 이곳에 와서 영주권을 얻는자가 허다한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이곳 미국에 와 있는 교환 의사가 신청할 것은 Waiver (2년간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조건)을 얻는 것인데 신청자의 상당수가 그 목적을 달성 한다고 합니다. 대개 Waiver 을 신청하는 조건은 다음 두가지인데 1)직계 가족(차자)중 미국시민이 있는 경우 그 미국시민의 신상에 관한 Exceptional hardship 을 이유로 그 지방 이민국에 신청하는 방법과 2) 국제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중요직책이 있는자로서 그 소속 기관장이 진정하는 방법으로서 2)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며 오로지 국방성에 관계하는 사람중에 이따금 성공하는 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1)의 조건을 이용하고 있으며 성공율은 각자의 자능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문의, 추가, 고견이 있으신분은 편집부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DR. J. H. KIM  
SLOAN-KETTERING INSTITUTE  
DIVISION OF BIOPHYSICS  
425 EAST 63rd ST.  
NEW YORK, NEW YORK 10021



To: *Dr. Shoungshik Cheigh*  
City Hosp. Center at  
Elmhurst  
Elmhurst, N.Y.

字眞說明

- (a) New York 地区同窓會 忘年会記念 撮影
- (b) 웃놀이 장면
- (c) 상품贈呈
- (d) Detroit 地区同窓生 親睦晚餐會



잊을 수 없는 N.Y. 동창들의 망년회

특별한미로 旧臘 三十日 N.Y. Manhattan 의 China Town 에 있는 Ting Yat Sake 飲食店에서 N.Y. 地区同窓들의 中心으로 盛大한 忘年会가 있었다. 他地方서 온 同窓들은 旧懷를 나누는 기쁨도 컸었고 丁未年을 좀 더 윤택하게 보려는 心情은 參席한 六十余名에게 한결같이 充滿한 心懷였다. 謹謹이 豐富한 사회자의 유기적 여흥은

夜半의 氣分을 더욱 向上 시켰고 持히 이날밤의 highlights 는 傳統的인 우리나라 同窓의 雜戲 웃 놀이였는데 (b) 參席人의 絶對的인 集中과 人氣가 끝까지 지속하였으며 賭博性의 素質을 極度로 讚揚한 勝利者에게 喜豫할만한 欽慕의 시상식을 베풀음으로서 (c) 이날밤의 忘年會는 參席人의 異口同聲으로 잊을 수 없는 망년회라는 결론을 내두었다 한다.

Detroit 同窓生 親睦會

旧臘 어느날 吳會長의 Detroit 訪內을 계기로 그 지방 동창생들 주체로 親睦會가 있었다. 이 기회에 敬務의대 大주 동창회의 聲譽를 더욱 고양시키고 상호간의 親睦을 크게 도모한 바 있으므로 그 발전을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State Board 試驗에 関한 註

기억력과 精進심이 활발할 時에 每州 State License를 가지려하나 영주권이라는 조건 때문에 응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직도 Washington D.C., Washington 州 양곳에서는 영주권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수험 자격을 물으므로 희망자는 응시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Basic Science 만은 Michigan 주에서 자격은 취해 특히 Basic Science Certificate는 여러 주 상호간에 교호력이 있으므로 후일 이것을 필요로 할 때 유리할 것으로 믿는다. 좀 더 구체적 내용은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 20,

# 경북 의대 재미동창회 소식

## 제 2 호를 내면서

미비한 첫호를 발간한 후 의외롭게도 동창 제현들의 많은 찬사를 받고 편집부에서는 부족한 용기를 다시금 꺾고 비록 합다반적 생활에서나마 서토들의 긍금증을 완쾌하기로 작정하고 제2호를 정리 하였습니다. 이호를 발간함에 몰심 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시지 않았든 많은 동창들께 사의를 표하며 특히 모교 대학병원 박희명 원장의 기사는 무엇보다도 유호한 기고라고 생각 합니다. 원송이 해를 맞고 우수가 지났으니 삼춘을 맞이 할 날도 멀지 않았읍니다. 밝은 해의 확장한 봄날에 건승을 빕니다.



## 재미 동창 여러분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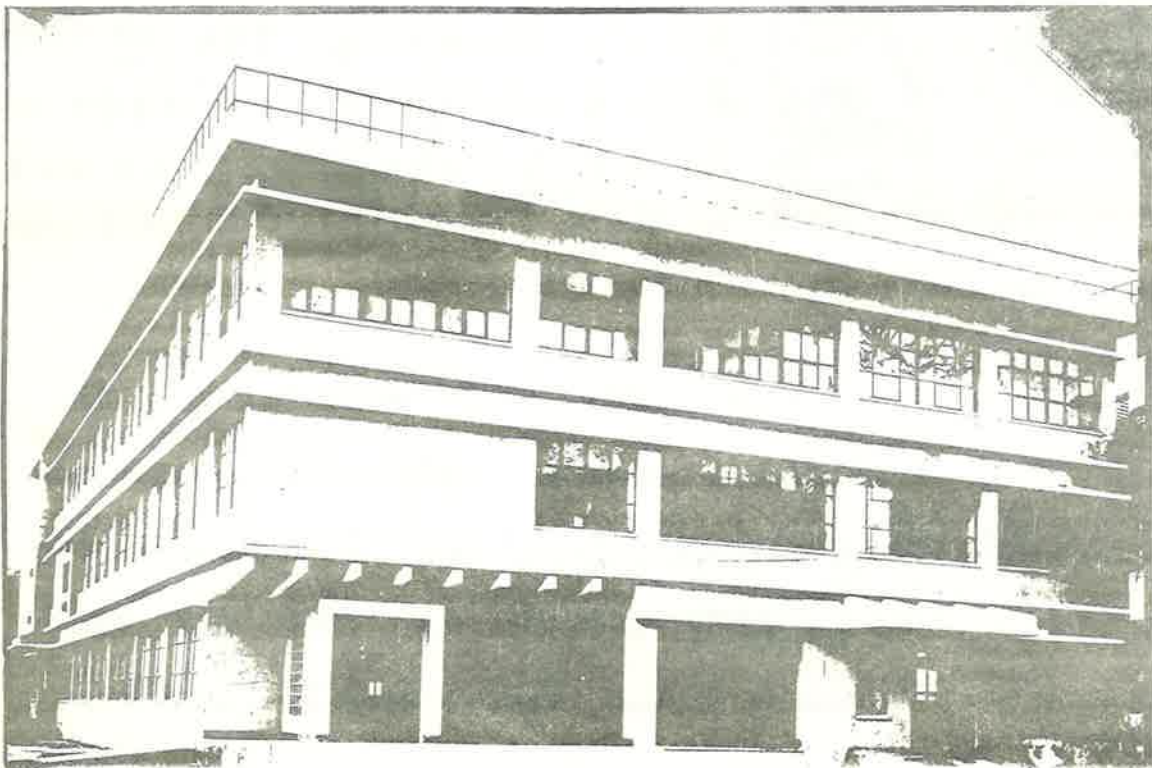
경북의과대학 부속병원장 박희명

안녕 하십니까? 재미 동창들의 상호 긴밀한 뉴대와 협력의 단합은 마음 든든한 소식입니다. 금년에도 많은 동창들이 도미 할것으로 기대 되는바 재미 동창회가 번창 하옵길 빌어 마지 않습니다.

이곳 형편을 말씀 드리면 뭐 특기 할 만한건 못됩니다만 새로워진건 병원 뒷편에 삼층 건물 일등을 새로 완공 시켰읍니다. 아랫층에는 응급실을 비롯해서 인턴 숙소 식당으로, 이층은 적신식 시설의 종합 수술실로 그리고 삼층은 특등 병실로 쓸 예정입니다. 특등 병실은 요즘 국민 경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실내에 욕실 화장실은 물론 에어 콘디쇼너, 텔레비틀 가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을 위한 휴게실, 샤워 룸등도 마련 했습니다. 수일내로 나성식을 가지려고 서두루고 있습니다. 구병원 건물은 조명과 페인팅을 새로 함으로서 건물이 지닌 어두움을 없애고 밝은 분위기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임상 강당을 비롯한 그 주위의 무조 건물은 일부분 이미 헐렸읍니다만 차츰 완전히 철거 하고 현대식 건물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동안 실험실은 침체해 있었읍니다만 가능한 한의 확충을 위해서 서두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들의 당면한 가장 큰 난관은 연구를 위한 새로운 기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현 국가시책이 경제부흥이 제일 목표인 이상 우리들의 욕망을 채울 시기는 경제 부흥이 만족한 수준에 도달한 이후라 야 될 것이며 따라서 신간 잡지에서 볼수 있는 연구를 우리들이 해 볼수 있는 날은 먼 것 같습니다. 자랑들만 늘어 놓았읍니다만 아직은 멀었읍니다.

항상 영광 있으시길 바라옵고 이만 주리 겠읍니다.



새로 증축된 건물  
-1층 맨 왼쪽분이  
보이는 층이 응급실인.